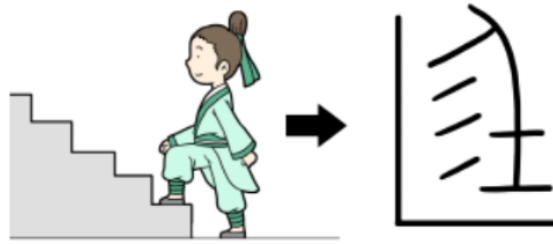


6(2)  
-  
61

회의문자 ①



庭

뜰 정

庭자는 '뜰'이나 '마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庭자는 广(집 엄)자와 廷(조정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금문에 나온 庭자를 보면 乚자에 人(사람 인)자가 廷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계단을 오르는 사람을 표현한 것으로 '조정'을 뜻하는 廷자이다. 廷자는 庭자 이전에 만들어진 글자로 계단을 올라가야 할 정도의 큰 집을 뜻했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廷자가 임금의 신하들과 업무를 보던 '조정'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广자가 더해진 庭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큰 집이나 있을 법한 '뜰'이나 '마당'을 뜻하기 위해서였다.

庭

금문

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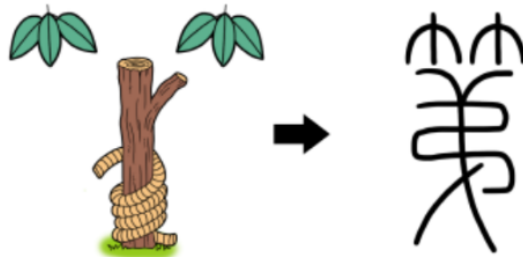
소전

庭

해서

6(2)  
-  
62

회의문자 ①



第

차례 제

第자는 '차례'나 '순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第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弟(아우 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第자는 나무에 줄을 차례로 감아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弟자가 '차례'나 '순서'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아우'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竹자를 더한 第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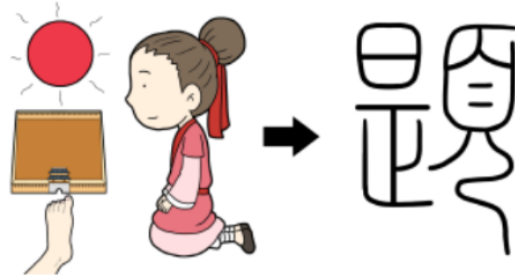
소전

第

해서

6(2)  
-  
63

회의문자 ①



題

제목 제

題자는 '제목'이나 '머리말', '이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題자는 是(옳을 시)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是자는 '옳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옳다'나 '바르다'라는 뜻  
을 가진 是자에 頁자가 결합한 題자는 '바른 얼굴'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얼굴'이란 얼굴의 정면에 있는 '이마'를 뜻한다. 하지만 지금의 題자는 주로 '제목'이나  
'머리말'과 같이 글의 시작 부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마가 얼굴의 시작 부분이듯이  
글의 시작 부분도 '제목'이나 '머리말'이기 때문이다.

題

소전

題

해서

6(2)  
-  
64

형성문자 ①



注

부을 주

注자는 '붓다'나 "(물을)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注자는 水(물 수)자와 主(주인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主자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무  
언가를 들이부어 채우는 것을 '주입(注入)하다'라고 한다. 注자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무언가  
를 집어넣음을 뜻하는 글자이다. 사전상으로는 注자를 '물덧 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을 대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채워 넣다'나 '주입하다'라는 뜻이다.

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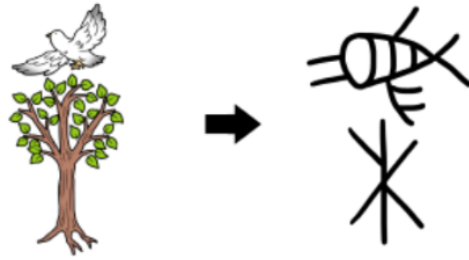
소전

注

해서



6(2)  
-  
65

회의문자 ①



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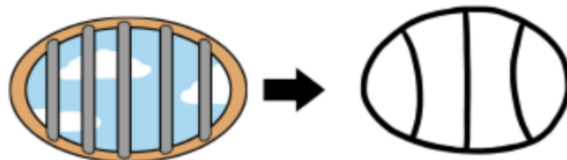
모을 집

集자는 '모으다'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集자는 木(나무 목)자에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集자는 나무 위에 새가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갑골문에서는 총 두 가지 형태의 集자가 등장하고 있다. 하나는 새가 나무 위를 날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마리의 새가 나무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여러 마리가 앉아있는 모습은 후에 隹(모을 집)자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단순히 새 한 마리만을 그려 '모이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6(2)  
-  
66

상형문자 ①



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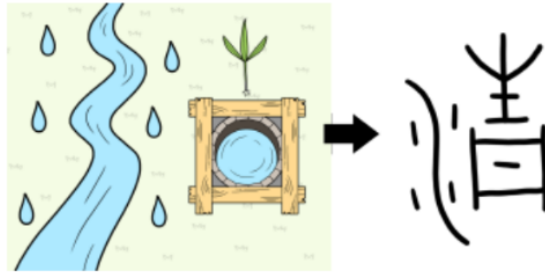
창(문)  
창

窓자는 '창문'이나 '굴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窓자는 宀(구멍 혈)자와 囪(사사로울 사)자,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창문'이라는 뜻은 囪(창 창)자가 먼저 쓰였었다. 囪자는 창살이 있는 창문을 그린 것으로 금문 때까지만 하더라도 '창문'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宀자와 囪자가 결합한 窗(창 창)자가 만들어지면서 집에 있는 창문이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아직도 窗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체자(異體字)였던 窓자가 '창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6(2)  
-  
67

회의문자 ①



清

맑을 청

淸자는 '맑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淸자는 水(물 수)자와 靑(푸를 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靑자는 우물가에 핀 푸른 초목을 그린 것으로 '푸르다'라는 뜻이 있다. 淸자는 이렇게 '푸르다'라는 뜻을 가진 靑자에 水자를 결합한 것으로 물이 푸를 정도로 맑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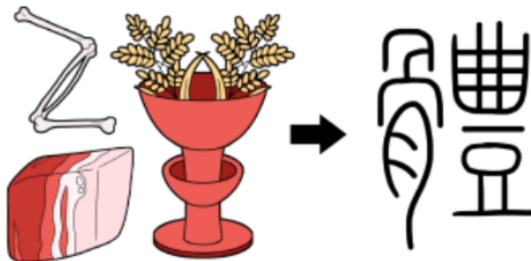
소전

清

해서

6(2)  
-  
68

회의문자 ①



體

몸 체

體자는 '몸'이나 '신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體자는 骨(뼈 골)자와 豐(풍성할 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豐자는 그릇에 곡식을 가득 담아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體자는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豐자에 骨자를 결합한 것으로 뼈를 포함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신체'를 뜻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體자는 '신체'라는 뜻 외에도 '물질'이나 '물체'와 같은 완전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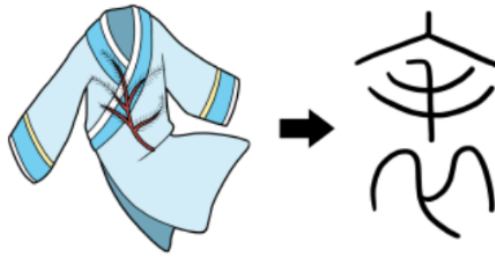
소전

體

해서

6(2)  
-  
69

회의문자 ①



表

表자는 '겉'이나 '바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表자는 衣(옷 의)자와 毛(털 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지금의 表자에서는 毛자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소전에서는 衣자의 가운데에 毛자를

겉 표

⦿ 그려놓았었다. 이것은 털로 만든 겉옷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表자의 본래 의미는 '외투'였다. 그러나 가장 바깥쪽에 입는 옷이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후에 '바깥'이나 '겉면', '용모', '나타나다'와 같이 표면에서 연상되는 다양한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表

소전

表

해서

6(2)  
-  
70

회의문자 ①



風

'바람'을 뜻하는 風자는 본래 봉황새를 그린 것이었다. 갑골문에 나온 風자를 보면 큰 날개와 꼬리를 가진 봉황이 그려져 있었다. 봉황은 고대 중국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새로 갑골문에 나온 風자는 바로 그 상상의 새를 그린 것이었다. 그러나 風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라는 뜻으로 혼용되기 시작했다. 바람의 생성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고대인들은 봉황의 날갯짓으로 바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에는 風자가 '봉황'과 '바람'으로 혼용되기도 했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凡(무릇 범)자에 鳥(새 조)자가 결합한 鳳자가 '봉황새'를 뜻하게 되었고 봉황이 물고 왔던 바람은 凡자에 虫(벌레 충)자가 더해진 風자로 분리되었다.

바람 풍

風

갑골문

風

금문

風

소전

風

해서